

양성당후기(養性堂後記)

1884_김상헌(金尙鉉) 지음_35.0×120.0cm



1884년(고종 21) 김장생(金長生)의 9대손 김상헌(金尙鉉, 1811~1890)이 양성당이 없어지고 있던 터에서 느낀 점을 적은 후기이다. 양성당 터에는 응도당을 새로 건립하였는데 혼암서원 이전 과정에서 응도당은 원래의 자리에 두고, 응도당을 양성당으로 불렀는데 본 기문은 양성당으로 이칭(異稱)한 응도당과 관련한 후기로 볼 수 있다. 후일에 양성당 복원을 기대하는 자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養性堂後記

養性堂者在連山之遯巖我文元先生講道之堂也堂久圯惟餘其址凝道堂者遯巖書院肄業之堂也水噓書院之前遷書院於遯巖之右谷而凝道之堂猶存焉後孫士林以凝道舊堂扁之爲養性堂用寓傲慕謹按先生所著養性堂記略曰遯巖園林中舊有亭扁曰雅閒本世祖朝文士崔清江之別業也後爲吾伯祖父庶尹公所得而余因家焉背有小山山下有松竹前有長林林外有清溪白沙明媚可以艇後間縣流巖石間引爲上下池以種紅白蓮又有桃溪柳汀而莎草被堤者可數百步梨棘柿栗楮漆桑柘環繞左右郊外有薄田數頃若使僮僕勤力其中足以供饘粥亭有舊刻詩什其一乃吾先祖政丞公所題也復求諸名作而續之矣壬辰喪亂亭樹灰燼俛仰傷感仍構小堂於遺址復刻諸詩又改號曰養性於虛先生之俛仰傷感幸勤重賁名以養性者意豈徒然哉日與門人弟子居是堂而嘆天性命之原究經曲節文之本王佐大業將以光施於邦家直道難容卒不遇以退性義理淵源之正且大者傳至百世而無窮則是堂講道之功也後孫士林之以凝道爲養性固出於一時權宜異日有志有力者作復就養性之址煥然締造一如先生在世時規制若上下池紅白蓮可種也若蹊之桃汀之柳堤之莎可修飾也尙鉉視陰人也猶有所厚望於諸君子年代已邈雲煙百變琴瑟杖屨撫調茫茫凡爲後孫爲士林其有不優然而思惕然而警者乎後孫金鉉永和寔寧遠院宇移堂扁之役使尙鉉記其事竊惟先生原記既載遺稿敢敘述之而爲養性堂後記云

聖上二十年癸未九代孫尙鉉謹識

양성당후기[養性堂後記]

양성당이란 연산의 돈암에 있으니 우리 문원공 선생이 도를 강론하던 집이다. 집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오직 터만 남았다. 그 터에 지은 응도당은 강당이였다. 물이 서원의 앞을 침범해서 서원을 돈암의 오른쪽 골짜기에 옮기고 응도당은 그대로 두었으니 후손과 사람들이 응도당의 옛 집으로 양성당을 삼아 사모함을 부치었다. 삼가 살피건대 선생이 저술한 양성당 기문에 대략 이르되, “돈암의 숲 속에 옛날에 정자가 있었고 이름 걸기를 아한(雅閑)이라 하였으니 본래 세조 때 문사 최청강의 별업이었는데 뒤에 와서 우리 백조부 서윤공이 얻었고 내가 집으로 만들었다. 뒤에는 조그마한 산이 있고 산 아래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으며 앞에는 긴 숲이 있고 바깥에는 맑은 시내가 있고 깨끗한 모래가 밝고 고우며 깊이도 배를 움직일 빛의 연꽃을 심고 또한 복숭아 오솔길 버들넷기가 있고 잔디가 덮인 뚝방이 몇 백 보 되며 배나무, 대추나무와 감나무, 밤나무와 닥나무, 율나무와 뽕나무, 잣나무가 왼쪽 오른쪽에 둘러 있고 들 바깥쪽에는 박전(薄田) 몇 정부가 있으니 동북으로 하여금 그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면 족히 의식을 공급할 만하였다. 정자에 옛날에 새긴 시 10수가 있었으니 그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선조 정승공이 쓴 것이다. 다시 이어 명작을 구해서 이어 부쳤는데 임진왜란 때에 정자가 잿더미로 변했다. 옛 일을 생각하면 감상이 깊어서 남은 터에 조그마한 당을 세우고 다시 여러 시를 새겨 붙이고 또 이름을 고쳐 양성이라 했노라” 하였으니, 아! 선생의 옛 일을 생각하면 감상하고 어렵게 증언하여 양성이라 이름한 것이 어찌 부질없이 한 일이겠는가? 날마다 문인제자들과 더불어 이 당(是堂)에 거처하면서 천인성명(天人性命)의 근원을 더듬고 경전(經典)과 절문(節文)의 근본을 연구해서 왕을 돕는 큰 사업을 장차 나라에 베풀고자 하였는데 곧은 도가 응답되기 어려워 마침내 만나지 못한 채 물리나왔지만 오직 의리연원의 바르고 큰 것만은 백세에 전하여 무궁함은 바로 이 당에서 도학을 강론한 공덕이었다. 후손과 사람들이 응도를 양성으로 바꿔 걸은 것은 참으로 한 때의 변통에서 나왔으나 다른 날에 뜻이 있고 힘이 있는 자가 나와서 다시 양성당의 터에 나가서 빛나게 세우기를 선생께서 세상에 게실 때의 제도와 같이 한다면 위 아래 못에 붉은 빛, 흰 빛의 연꽃을 심을 수 있으며 오솔길에 복숭아와 물가의 버들과 제방의 잔디도 꾸밀 수 있을 것이다. 상헌(尙鉉)은 늙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여러 군자들에 많은 희망이 있노라. 연대가 이미 멀어졌고 구름과 연기가 변태하여 금슬장구(箴瑟杖屨)의 남긴 자취가 망망히 모든 후손과 사람은 방물한 상상과 놀라운 일깨움을 갖게 않을 자가 있겠는가? 후손 광현(光鉉) 영화(永和)가 옮기고 당명을 바꾸는 역사를 관장하고 상현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옥이 생략건대 선생의 원래 기문이 유고(遺稿)에 이미 기재되었기 때문에 감히 그를 서술해서 양성당 후기를 삼는다.

성상 20년 계미(癸未, 1883, 고종 20)에 9대손 상헌(尙鉉)은 삼가 지음.

※ 『遼寧書院誌』 수록

※ 번역: 『돈암서원(遼寧書院)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201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